

전북 내륙-새만금, 통합 교통망 완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15년 만에 정식 개통... 전주 산업·관광 지형 바꿀 전환점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지인 전주와 미래 성장거점인 새만금 사이의 연결축이 완성되면서 전주의 산업과 관광 지형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지난날 22일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 새만금IC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km 구간을 연결하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15년, 지난 2018년 착공 이후 꼬박 7년 만이다.

이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에는 총 2조 74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 단축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호남·순천-완주·익산-장수 등 남북축 일변도였던 전북의 고속도로가 동서로도 연결돼 전주를 비롯한 전북 내륙과 새만금을 하나로 묶는 통합 교통망이 완성됐다.

특히,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 영호남을 연결하는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전체 311km의 구간 중 65%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8공구 전경.

201km가 완성됐다. 여기에 지난 10월에는 무주~대구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동서 3축 완성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개통은 단순한 시간과 거리 단축을 넘어,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외연 확장과 더불어 산업·관광·물류 전반의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 국가산단과 새만금 항만 인프라와의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

과 운송 효율 향상 등 기업 활동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 또, 이차전지와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이 집중될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신산업 생태계 전반에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시가 현재 미래 신산업의 거점이 될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고속도로 개통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번 고속도로 개통을 통해 관광 분야에도 새로운 지형이 구축된다. 이는 새만금 및 고군산군도, 변산

반도 등 서해안 관광권과 전주한옥마을 등 내륙 관광권이 빠르게 연결되고, 하나의 동서관광 벨트로 연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새만금과 전주를 포함한 완주·김제·부안·군산 등 인접권역과의 관광코스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이어져 관광 외연 확대를 위해 아중호수와 덕진공원, 완산철봉, 모악산 등 새로운 관광거점을 조성 중인 전주시의 청사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연구·기술 인력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고용 창출과 관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인구 정착 및 유입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대공법을 토대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동서 3축 완성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주 대변혁이 본격화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전주의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되고 산업과 관광, 교통 등 전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성 기자



전주시는 2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텍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바이오 생태계 본격 확장 시도

전주시, 바이오 유치기업과 공동 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온 전주시의 계획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는 2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파마로보틱스와 뉴아인, 하이퍼텍스 등 첨단바이오 분야 기술력을 보유한 3개 기업과 공동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세 기업의 대표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기업 애로 해소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계획과 바이오산업 육성 방향을 설명하고,

기업들로부터 이전 계획과 기술개발 현황,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특히 이번엔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모두 첨단 의료기기과 전자약 분야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술 기반 기업들로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와 세 기업은 바이오산업 관련 정보 교류와 공동사업 발굴, 국가 공모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이들 기업의 이전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바이오 연구·산업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혁성 기자



전주시 초록정원사 31명 탄생

정원도시 전주를 아름답게 가꿀 새내기 초록정원사 31명이 추가 탄생했다.

전주시는 2일 전주정원문화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초록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수료 후 정원작가와 정원해설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프로그램 운영요원, 도심 정원 유지관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주의 도시 경관 개선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수료식에서 전주시의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해온 안행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 차장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권혁성 기자

AI활용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 실증 공간 조성

전주시, 2027년 준공 목표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옛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일대에 AI 기반의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증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마련된다.

전주시는 지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51만1684㎡ 부지를 대상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27억 원과 도비 38억 원 등 총 517억 원을 투입해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덕진수영장과 전복여성가족재단 사이 4500㎡ 부지에 AI 기반 첨단디지털문화콘텐츠를 제작·실증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설계가 마무리되면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거점시설의 1~2층은 AI 기반의 디지털문화콘텐츠 제작·실증공간으로 조성되며, △AR·VR·MR을 아우르는 XR 기술과 AI영상 분석기술 △AI 아바타·모션 생성 기술 등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실증 공연이 가능한 복합 스튜디오로 구성된다.

또한 3~7층은 AI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한 기업 입주 공간으로 조성될 입주 기업들이 AI 콘텐츠 개발과 실증 R&D, 데이터 분석, 회의 및 네트워킹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는 시설 조성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첨단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공간 지원사업'을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AI 영상·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한 시민들의 AI 이해도 확산 및 활용 역량 강화 △청년 창업 교육과 멘토링 등으로, 이 프로그램은 거점시설 준공 시점인 2027년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시는 덕진권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옛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 들어설 컨벤션센터와 호텔, 백화점, 미술관, 전시관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확대를 위해 전북대 구정문 앞 상권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체면터 덕진권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성 기자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으뜸자원봉사자 6명 시상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 온 전주시민 4명과 2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일 전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3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일반인 3명과 청소년 1명, 2개 단체에 각각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무료급식소 배식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보조 등 지역 돌봄에 힘써온 신상우 씨(36세, 남)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 돌봄과 학습지도를 맡아온 최운혁 씨(20세, 남) △중·고등학생 영어 멘토링과 초등학생 학습지도를 꾸준히 이어온 고승희 씨(23세, 여)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어린이이장의



협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 온 황희훈 군(17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정성평가 단체부문에서는 △오양병원 이·미용 봉사과 무료급식소 배식, 아동 생일파티 지원 등 지역 돌봄 활동을 펼쳐온 전주시 봉사단체 '디딤돌'(대표 박지윤) △노인들을 위한 국악·가요·댄스 공연 봉사팀을 이어온 '한백문화교육예술단'(대표 백금녀)이 선정됐다.

이들 두 단체는 올해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한 현장 활동을 펼쳐오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권혁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들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